“GGM은 노·사·광주시·정부 모두 상생해야하는 일자리”

조금 낮은 임금 받는 대신
고용 안정과 복지로 대타협
국내 첫 지역 상생형 일자리
노·사 신뢰 복원이 급선무
최대 주주 광주시 역할 중요
정부도 제도적 뒷받침 나서야

광주형 일자리 ‘GGM’ 갈등의 원인과 해법은

낙후한 광주 발전의 염원을 담아 출범한 전국 최초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노사 갈등과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면서,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 성과 중 하나인 GGM의 성공적 안착을 목표로,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와 광주시, 고객사이자 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내 첫 상생형 일자리, ‘갈등의 일자리’로 전락=지난 30일 GGM에 따르면 2019년 출범 후 2021년 9월 경차 캐스퍼 양산을 시작하며 주목받았던 GGM은 ‘노동계와 자본이 상생하는 국내 첫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대기업 완성차 공장의 높은 임금보다는 다소 낮은 임금을 받는 대신 고용 안정과 복지로 대타협을 이끌어 낸 게 핵심이다.

그러나 최근 GGM은 심각한 노사 갈등과 생산 차질에 시달리고 있다. 핵심 쟁점은 노동조합의 출범과 교대 근무 도입 여부다.

사측은 출범 당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지키지 않은 노조를 비판하며 ‘노사 상생 정신 훼손’을 주장하는 반면 노조 측은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한 노사 협상을 넘어 광주형 일자리 자체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고객사인 현대자동차도 GGM의 불안정한 운영 상황 등을 겪으면서, 불신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GGM 경영진이 노사 갈등이 지속될 경우 이미 축소된 현 위탁 생산 규모마저도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는 이유다.

◇협정서 담긴 35만대 생산 목표 달성 급선무=결국 이 같은 갈등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 관계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노사는 GGM 출범 당시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담긴 35만대 생산을 최우선 목표로 2교대 근무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5만대 달성 이후 노조의 임단협 활동 등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누적 생산대수는 2024년 12월 기준 16만 382대이며, 현 무교대 근무시스템의 생산 속도라면 2028년 상반기께 35만대 달성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GGM 노조 관계자는 “광주시, 현대차, GGM, 정부가 목표 대수인 35만대를 달성한 뒤 명확한 계획을 묻고 싶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광주시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다음 단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 정부·광주시 ‘강 건너 불구경’ 언제까지=지역사회에서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무관심한 광주시와 중앙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GGM의 최대 주주인 광주시가 적극 나서 지역 제조업 생태계 복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GGM의 설립 당시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중재자 이상의 역할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 주도로 노사 간 협상의 물꼬를 트고, 현대차와 정부를 상대로 정상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핵심 조율자로 나서야 한다는 게 지역 산업계의 의견이다.

특히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성과물 중 하나인 노사민정 화합의 광주형 일자리를 계승하고 전국 확산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GGM의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광주형 일자리’라는 모델 자체의 신뢰도는 추락하고, 제2의 상생형 일자리의 탄생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GGM 노조의 요구는 타 노조와 비교해도 무리한 수준은 아니다”면서도 “극한 대립보다는 상호 양보와 상생의 정신으로 협약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노사 관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GGM은 설립 근간에 따라 노조상생협정서를 철저히 지키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GGM이 ‘강경’, ‘대치’의 노사가 아니라 진짜 상생의 노사 문화를 만들어가는 회사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9년 9월 출범한 GGM은 광주시(483억원), 현대자동차(437억원), 광주은행(260억원) 등 36개 투자자와 기관이 참여해 총 2300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됐으며, 현대자동차로부터 2021년부터 캐스퍼, 2024년부터 캐스퍼 EV를 위탁 생산하고 있다. GGM 사측과 노동자 등 노사민정은 출범 당시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따라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한 35만대 생산 이전까지 임금·근로여건을 노사상생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지난 30일 광주글로벌모터스 차체 조립 라인이 오후 4시 30분을 넘기자 멈춰섰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 대통령 속전속결 인선 … 정국 정상화 강한 의지

27일 만에 17명 장관 후보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빠른 일처리가 내각 인선에서도 돋보이고 있다.

취임한 지 27일째인 지난 30일 현재 총 19개 부처 가운데 17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두 자리만을 남겨뒀다.

이재명 정부와 똑같이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1기 내각 지명을 완료하기까지 54일이 걸렸다. 인수위를 거쳐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당선일부터 내각 지명 완료까지 36일이 걸렸고, 박근혜 정부는 60일이 소요됐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의 리더십 공백 상태가 장기화한 데다 대내외적 경제·안보 상황도 엄중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정 안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고 최대한 조각을 서두른 것으로 분석된다.

라인업을 짜는 데에는 속도가 났지만, 아직 청문 정국이라는 고비가 남아 있다. 국회 검증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의 능력이나 도덕성 등에 결함이 발견된다면 이 대통령의 ‘속전속결 국정안정’ 구상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재산 관련 의혹 등으로 사퇴한 가운데 추가 낙마자가 나올 경우 임기 초 이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정 동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비교적 이른 36일 만에 내각 인선을 마무리했던 윤석열 정부의 경우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듭된 낙마 탓에 2022년 10월에야 1기 내각의 임명절차를 완료할 수 있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청문 정국에서의 중대한 자격 논란이 최대한 불거지지 않기를 바라며 국회의 검증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중 본회의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이 처리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여야 간의 긴장이 완화될지 혹은 더 고조될지에 따라 이 대통령 앞에 놓일 청문 정국의 ‘난이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리얼미터, 이 대통령 국정수행 ‘잘함’ 59.7%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9.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3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일~2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해 응답자 59.7%가 ‘잘함’, 33.6%가 ‘잘못함’이라고 각각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8%였다.

‘잘함’이라는 응답은 전주에 비해 0.4%포인트(p) 올랐고, ‘잘못함’이라는 응답은 0.1%p 올랐다. 이 대통령 지지도는 2주 연속으로 상승하며 60%에 근접했다.

응답자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 대통령 지지도는 대구·경북(50.1%)과 서울(53.5%)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50%를 웃돌았다.

이 가운데 광주·전라 지역이 79.0%로 긍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외 제주 65.0%, 인천·경기 62.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지난 26~27일에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0.6%로 직전 조사 대비 2.2%p 올랐다. 반면 국민의힘은 30.0%로 전주 대비 1.4%p 하락했다. 두 정당 간 지지도 격차는 20.6%p로 벌어졌다.

두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가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가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가 5.8%, 정당 지지도 조사가 4.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콕 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콕!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콕!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콕!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H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화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버들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